Entertainment p/20
수지 성희롱 사진 법적대응
metro
Entertainment p/18
'소시' 연말시상식 MC 독식
월급 5년 모아야 30평 전셋집
NEWS p/02
교통카드 분실해도 잔액 환급
NEWS p/03
200만장 발급 돌파 경품 이벤트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희망마차
구구궁
집중 못합니까?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탁탁
그래서 얼른이 뭐기요?
분...풍...지
깍깍
깍깍깍
까악
희망마차
남모르게 돕는 이웃들이 많구먼
어때 특별히 보기에도 충분하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
희망온돌

메트로 2012년 12월 26일 수요일 제2637호 www.metroseoul.co.kr

추위 이기는 '뜨거운 4일' 속으로

평창 송어·칠갑산 얼음분수 등 겨울축제 한창 징검다리 연휴 활용해 새해 새출발 다짐 투어

나흘간의 새해 황금연휴(29일~내년 1월 1일)가 오감 만족 '겨울축제'로 더욱 즐거워진다.

혹한이 예고된 가운데서도 전국 지자체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 본격적인 겨울축제 손님맞이에 나섰다.

꽁꽁 얼어붙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신나게 눈썰매를 타다 보면 '북극 한파'도 잊히기 마련. 징검다리 휴가를 얻은 직장인들과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설국으로 떠나는 새해맞이 채비로 분주하다.

겨울축제의 신호탄은 '눈과 얼음의 고장' 강원도 평창이 쏘아올렸다. 싱싱한 송어를 잡는 짜릿한 손맛이 일품인 '평창 송어축제'를 내년 2월 3일까지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연다. 평창군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답게 봅슬레이·눈썰매 타기 등 다양한 겨울 레포츠를 준비했다.

◆ 토끼몰이·팽이치기 등 다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해발 700m 고지에 자리 잡은 의야지 바람마을에서는 '눈꽃이 축제'가 진행 중이다. 눈썰매·스노모빌·래프팅 같은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다.

천장보다 높다 해서 '천장리'라고 이름 붙은 충남 청양군의 천장리 알프스 마을에서는 제5회 칠갑산 얼음분수 축제가 한창이다. 이곳은 '충남의 알프스' 칠갑산에 둘러싸여 다른 지역보다 춥다.

마을 위쪽에는 이 같은 날씨를 이용해 내년 2월 11일까지 얼음 분수와 눈 조각을 전시하는데 사진 찍기에 그만이다. 호호 불어가며 따끈한 고구마와 옥수수, 떡가래를 구워 먹는 소박한 고향의 맛도 느낄 수 있다.

◆ 2만~3만원대 실속형 당일치기 상품도 인기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에도 가볼 만한 겨울 축제가 많다.

포천시는 29일부터 한 달간 백운계곡에서 '제5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축제'를 실시한다. 토끼몰이, 팽이 치기 등 겨울 민속놀이가 곳곳에서 펼쳐진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24인용 야전텐트에서 반합에 라면을 끓여 먹는 혹한기 야전 병영 체험. 밤에는 LED 조명으로 화려한 야경을 연출할 계획이다.

서울 오늘 영하 14도 올겨울 최강한파 … 그래도 썰매는 달린다 한파와 함께 눈이 내린 가운데 25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노을공원에 있는 눈썰매장에서 한 어른과 아이들이 크게 웃으며 지도록 눈썰매를 타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2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징검다리 휴일이 끝나는 26일 아침기온은 서울 영하 14도 등 전국이 영하 16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를 기록해 매우 추울 것이라고 예보했다. /연합뉴스

경기도 가평군 아침고요수목원은 밤마다 형형한 빛 잔치를 연다. 수목원은 내년 3월 3일까지 '오색별빛 정원전'을 진행, 600만 개의 전구를 밝혀 환상의 겨울 풍경을 선사한다.

겨울축제의 백미는 다채로운 공짜 체험 행사들이다. 우리테마투어 이승원 대표는 "여러가지 이벤트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데다 축제와 연계한 당일치기 상품 대부분이 2~3만원대로 저렴해 경기불황 속 알뜰한 여행 코스를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문의가 많다"며 "특히 올해는 징검다리 연휴로 최장 4일까지 쉴 수 있어 예년보다 예약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metroseoul.co.kr

정동진 가지 않아도 서울서 행복한 해맞이

마포 하늘공원

도봉산

성북 개운산

남산·인왕산·하늘공원 등 18곳 다양한 일출행사 열려

정동진이나 땅끝마을에 가지 않아도 서울 시내에서 계사년 첫 해돋이를 즐길 수 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 오전 6시부터 남산 팔각광장과 북한산 시단봉, 중랑 용마공원 등 새해 일출 명소로 알려진 18곳에서 '2013년 계사년 해맞이 행사'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해맞이 행사는 각 구청 주관으로 열리며 노원구 불암산 중턱, 은평구 봉산해맞이공원, 서초구 우면산 소망탑, 송파구 올림픽공원 망월봉, 강동구 일자산 해맞이광장 등에서 신년 맞이 축하공연과 소망 기원 행사가 개최된다.

서대문구 안산 봉수대에서는 따뜻한 손두부를, 강남구 대모산 정상과 구로구 매봉산 정상에서는 떡국을 새해 아침으로 제공한다.

뛰어난 새해 경관을 원한다면 인왕산과 관악산이 동시에 보이는 양천구 용왕산 체육공원, 중랑천과 한강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성동구 응봉산 팔각정이 제격이다.

종로구 인왕산 청운공원과 마포구 하늘공원에서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엽서를 부치는 해맞이 우체국을 운영한다.

중구 남산 팔각광장과 성북구 개운산 운동장 및 강서구 개화산에서는 소망을 적어 보내는 희망 풍선 날리기 행사가 열린다.

해맞이 대표 산으로 새해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리는 광진구 아차산 해맞이 광장에서는 연시행음 만화 찍기와 소원을 들어준다는 용고(龍鼓) 울리기 연속 행사가 펼쳐진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parks.seoul.go.kr)에서 얻을 수 있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새해 첫 일출은 오전 7시26분 독도에서 볼 수 있으며 서울은 남산을 기준으로 오전 7시47분이 될 전망이다.

/정윤희기자

5년치 월급 모아야 서울 30평 전셋집

서초·강남 아파트 얻으려면 꼬박 7년 넘게 저축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모아 서울의 30평 아파트 전셋살이의 꿈을 이루는 데는 5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의 경우에는 7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25일 부동산리서치 전문업체 리얼투데이가 국민은행이 발표한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전세 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4일 기준 서울 소재 아파트 3.3㎡당 전셋값은 82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용면적 84㎡(30평)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 시세는 2억4893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중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5만원이다.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하더라도 서울에서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금을 구하는 데 4.9년이 걸리는 셈이다.

올해 전세 가격이 초강세를 이어간 서초구는 30평 아파트 전셋값을 모으는 기간이 7.4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구에서는 30평 아파트 전세금을 모으는 데 필요한 기간이 7.3년으로 나타났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전세 물량 부족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매수가 가능한 수요자도 전세로 눌러앉아 전셋값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시장 회복 기대는 어려운 만큼 전세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성기자 fazyhand@metroseoul.co.kr

치솟는 전세금 25일 서울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전세 매물을 적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커지는 렌트푸어의 한숨

보증금 2년새 24% 껑충 가구당 전세금 1억 육박

가구당 전세금이 1억원에 육박했다. 전세보증금은 2년 새 24% 가까이 증가했다. 대출로 전월세 값을 마련한 세입자들은 다시 빚을 내고 있다.

25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전세 가구가 낸 전세금은 올해 평균 927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조사 때만 해도 7496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년 만에 전세금이 23.7% 뛴 것이다.

전세금은 뛰었지만 세입자의 소득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전세 가구의 경상소득은 2010년 3910만원에서 올해 4380만원으로 1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결국 2년 전에는 소득의 2배만 집주인에게 쥐어주면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게 올해는 3배 가까이 줘야 하는 셈이다.

월세보증금도 2010년 가구당 평균 1127만원에서 올해 1311만원으로 16.2% 비싸졌다. 전세난에 저금리 기조가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커지면서 보증금 대출은 늘었다. /김지성기자

예쁘게 찰칵 25일 서울 중구 퇴계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린 '얼음꽃축제'에서 시민들이 얼음 조각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美 '글로벌호크' 4대 곧 한국 판매

1조3000억 가격협상 난항

미국 국방부는 지난 21일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사진) 4대를 한국에 판매하겠다는 의향을 의회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24일(현지시각) 이런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DSCA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글로벌호크 4대의 장비와 부품, 훈련, 군수 지원 등을 포함한 판매 가격을 12억 달러(약 1조3000억원)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대당 4000억원으로 예상했던 글로벌호크 가격이 9000억원 이상 치솟은 것으로 알려지자 그간 미 측과 가격을 낮추는 실무 협상을 진행해왔다. /장윤희기자 gnoo100

일산 성폭행 도주범 검거

경찰 조사 중에 도주한 일산 성폭행 피의자 노영대(32)가 닷새 만인 25일 경기도 안산에서 검거됐다. 안산은 전과 9범인 노씨가 주로 범죄를 저질렀던 연고지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25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 있던 노씨를 격투 끝에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 오피스텔은 교도소 동기로 알려진 A씨가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노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준 지인과는 다른 인물이다.

검거 당시 노씨는 집 안에 혼자 있었으며, 왼쪽 손목에 수갑 양쪽을 모두 차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씨는 곧바로 일산경찰서로 압송 수감된 뒤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뱀 캐릭터 모여라 2013년 뱀의 해를 앞두고 25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뱀 캐릭터를 이용한 보디필로우, 수유 쿠션 등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배터리 방전 주범은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가 겨울철 배터리 방전의 주범으로 부상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주차감시 모드를 채용한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배터리 방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시동을 끈 상태로 사용하는 전기제품의 전류가 0.03Ah 이하인 경우 오랜 시간 시동을 걸어 충전하지 않아도 차량 배터리의 방전 위험이 거의 없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 중인 대다수 블랙박스는 이 기준을 10배 웃도는 최소 0.2~0.3Ah의 전류를 사용한다.

보험회사 현장출동 업체 관계자는 "통상 겨울철에 차량 배터리 방전 사례가 급증하지만 최근 그 수가 크게 증가한 것 같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해 현장에 나가보면 블랙박스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주차감시 모드를 해제하는 게 방법이지만 블랙박스의 주요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뚜렷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차선책은 번거롭더라도 매일 2~3㎞ 이상 주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블랙박스가 소모하는 전류량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상훈기자 ilwon

원격 재택근무자 46만명 전체 기업의 1.4% 불과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원격 재택근무제를 채택한 국내 기업은 1.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발표한 '2012년 정보화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업체 335만여 개사 중 원격 근무를 도입·운영한 사업체는 4만6000여 개사로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3만7000여개)보다 0.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종사자 수 250인 이상의 큰 규모 사업체만 놓고 보면 원격근무 도입·운영 비율이 지난해 22.3%로 전년(13.1%)보다 9.2% 늘어났다. 행안부는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근무자 수를 46만 명으로 추정했다.

국내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지난해 경기불황에도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훈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3> 글·그림 박상철

교통카드 남은돈 환급

분실·도난때도 신고만 하면 3일내 잔액 돌려받는 안심카드 내일 출시

잃어버린 대중교통카드의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심카드가 27일부터 출시·판매된다.

서울시는 27일부터 지하철역 교통카드 자동판매기나 고객안내센터, 편의점에서 이 같은 '대중교통 안심카드'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 나오는 이 카드는 사용 전 카드정보 등록을 통해 고유의 16자리 번호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분실해도 남은 잔액을 조회·환불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선불교통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사용정지가 어려워 분실·도난 신고를 하더라도 교통카드에 남은 잔액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최초 구입비는 3000원으로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나 고객센터(1644-2250)를 통해 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다만 기존 티머니 카드와는 달리 서울·인천·경기 시내·외 마을·광역버스와 수도권 도시철도, 의정부 경전철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편의점 소액결제용이나 공항버스, 택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만일 분실 신고가 발생하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분실 신고를 하고, 다음날 오전 6시를 기준으로 3일 이내 카드 값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게 된다.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카드 구입 뒤 지하철 고객안내센터(t-센터)에서 카드 상태를 청소년용 또는 어린이용으로 변경하고,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어린이 카드로 등록하면 된다.

잃어버린 줄 알고 잔액을 환불받은 분실·도난카드를 찾아서 다시 쓰기를 원하면 지하철역 고객안내센터(t-센터)에서 정지 상태를 풀고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채윤호기자 alwon@metroseoul.co.kr

추위 녹인 프리허그 성탄절인 2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학생들이 프리 허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모범납세자 신용등급 올려 대출금리 낮춰준다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 납세자는 금융기관 신용등급도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모범납세자 우대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이 모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내년 1월 전국은행연합회에 해당 명단을 제출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모범 납세 이력을 신용평가 우대 항목에 반영한다.

신용평가 시 가산점이 매겨지게 돼 종전의 여신한도·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1단계 오르면 연 0.5~0.7%의 대출금리가 경감되고, 대출한도는 5000만원가량 늘어난다.

문희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모범 납세 이력은 체납 사실 등 감점 요소가 되는 정보와 달리 금융 신용평가 때 등급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모범 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지현기자 lazyhand@

'김종인 카드' 쓸까 말까

박 당선인 오늘 인수위원장 발표…당 안팎 견제 분위기 걸림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인수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중용 여부가 관심 대상으로 올랐다.

25일 박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봉사활동 후 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선 기준으로 "전문성"을 꼽으며 "그 외 여러가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의 이런 발언에 비춰, 인수위원장으로 비영남권 출신의 경제전문가인 김 전 위원장이 유력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호남 출신으로 박 당선인의 대권가도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의 기틀을 세웠고 경선캠프와 대선캠프에서 요직을 맡으며 최대 조력자로 부상했다.

문제는 당 안팎의 경제민주화 혹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 분위기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두고 김 전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내가 인수위원장이라면 (기존 순환출자 문제를) 절대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김 전 위원장이 공약에서 빠진 기존 순환출자 문제는 인수위에서 재론될 수밖에 없다고 공언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앞서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도 "박 당선인이 지지자의 열망을 가장 빨리 배신하는 길은 경제민주화를 내건 김 전 위원장을 인수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어날 인수위 사무실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설치하기로 확정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 집무실은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결정됐다.

/김숙희기자 [illegible]

"도시락 배달 왔어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성탄절인 25일 서울 창신동 쪽방촌에 사는 한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기 위해 방문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봉주 前의원 만기출소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복역한 정봉주 전 의원이 25일 만기 출소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토크콘서트 등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朴 찍은 이유는 신뢰·원칙" 安 정치 재개는 47% 찬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지지자들 중 22%가 선택 이유로 '약속에 대한 신뢰'를 꼽았다.

한국갤럽이 유권자 1036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대선이 끝난 직후인 오후 6~9시까지 벌인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신뢰와 원칙' 이미지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공약의 경우 '민생 안정'(8%), 중산층 복원(6%), 반값 등록금(4%), '복지정책 확대'(4%)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지지 후보와 관계없이 조사된 안 전 후보에 대한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찬성'(47%)이 '반대'(40%)보다 많았다. 특히 50대는 과반수(54%)가 안 전 후보의 정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박동조기자 [illegibl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신문로 2가 1 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 인 · 편집인	남 궁 호
사장 · 편집인	김 봉 식
광고국장 직대	김 성 일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8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62

[illegible]

"제 글로 상처입은 분께 송구"

윤창중 수석대변인 사과 '국민대통합 구현에 혼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윤창중 수석대변인이 "제가 쓴 글과 방송에 의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많은 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25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깊이깊이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인 국민대통합과 약속 대통령 민생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대선 기간 칼럼 등을 통해 야당 후보와 지지자에게 '온철수의 정권 나눠먹기 쇼' '정치적 창녀' 등 원색적 비난과 욕설에 가까운 거친 발언을 쏟아내 '국민대통합' 기조에 맞지 않는 인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박 당선인은 24일 인수위원으로 윤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유일호 비서실장, 박선규·조윤선 대변인 등을 깜짝 임명했다.

/윤유리기자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암보험, 의료실비보험, 사망보험
이제 따로 가입 마시고
한번에 보장
받으세요!

차티스
큰병 이기는 보험

암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가입후 91일부터 보장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지급)

상해 질병입원 의료실비 5천만원 한도
기준병실 기준, 건당 365일 한도 보상, 보장대상 의료비의 10%는 본인부담 (단, 연 200만원 한도)

상해 질병통원 의료실비
외래 – 건당 25만원 한도 / 처방조제 – 건당 5만원 한도 연간 180건 한도로 보상. 건당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

상해 질병사망 1억원
상해사고로 사망시 보장, 전문등반, 자동차(오토바이)경기로 인한 사고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참조
질병사망 또는 약관이 정한 지급률 80%이상 후유장해시 지급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 5백만원 한도
(Active 보험금)약관에 정한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기본계약 (1인당, 단위: 원)			선택계약																
Active 보험료			암 진단비 II			상해입원 의료실비		상해통원 의료실비		질병입원 의료실비		질병통원 의료실비		상해사망		질병사망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99세	6,270		30세	2,260	7,030	2,610	830	1,170	530	8,030	7,730	7,320	8,630	7,490		4,460	3,260
			40세	6,780	17,570	3,330	1,580	1,460	930	13,830	14,200	11,920	13,240			15,100	7,730
			50세	17,160	21,390	3,890	2,490	2,160	1,860	30,100	26,590	22,170	27,330			43,860	18,510

1 가입연령 15~65세 2 ... 6.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최대 90세까지(일부 담보는 9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577-6428

큰돈 드는 치매에 다쳐서 드는 병원비도!
75세 우리 부모님도 보험가입 된다고요?

치매간병비 3천만원 (최초 1회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시청각질환 수술비 50만원
시청각질환으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상해입원 의료실비 5천만원 한도 기준병실기준 건당 365일 한도 보상, 보장대상 의료비의 10%는 본인부담(단 연200만원 한도)

상해통원 의료실비 외래 – 건당 25만원 한도 / 처방조제 – 건당 5만원 한도 연간 180건 한도로보상, 건당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 1천만원 한도 (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차티스
명품 부모님보험

기본계약 (1인당, 단위: 원)			선택계약									
Active 보험료			치매간병비(중증치매)			시청각질환 수술비		상해입원 의료실비			상해통원 의료실비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50~89세	12,540		50세	660	1,770	200	230	50세	3,890	2,690	2,180	1,860
			60세	3,600	8,560	430	560	60세	5,420	4,320	2,610	2,500
			70세	21,030	42,730	1,030	1,380	70세	7,180	8,210	2,620	2,740

1 가입연령 50~75세 2 ... 5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환급금이 없음 6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최대 90세까지(상해 입 통원 의료실비 담보는 8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577-6427

CHARTIS

살아숨쉬는 대한민국 '생생 시간여행'

최초의 근현대사 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오늘 개관

가장 오래된 태극기부터 한·일 월드컵 함성까지
독립선언문 진품-윤복희 미니스커트 등도 전시

몇 한 해 TV 드라마의 특징 중 하나는 주인공들이 과거에서 현재로 이동하는 시간여행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이다. 옥탑방왕세자, '인현왕후의 남자', '닥터진', '신의', '동이' 인기를 끌었다. 이런 시간여행은 박물관에서도 가능하다.

4년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26일 문을 여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타임머신을 탄 듯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게 해준다.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역사시계 동영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감상하면서 3층 전시실로 이동하면 웅장한 애국가를 배경으로 우리 영토와 태극기를 그려내는 프롤로그 영상을 만날 수 있다.

1886~90년 조선의 외교고문이었던 미국인 데니(Owen N. Deny)에게 고종이 하사한, 가장 오래된 태극기가 '데니태극기'는 오른쪽에 끈이 남아있어 국기봉의 위치를 알 수 있다.

1896년 최초로 도입된 서울~인천 간 궁중 전용 전화인 자석식 벽걸이 전화도 볼 수 있다. 에릭슨사의 제품으로 '텔레폰'을 한자음으로 차용해 '덕률풍(德律風:칭찬과 꾸지람이 바람처럼 위로부터 온다는 뜻)'이라 표현한 점도 눈길을 끈다.

고종황제는 덕률풍을 이용해 인천 감리(監理) 이재정에게 전화를 걸어 사형집행 정지 명을 내렸는데 이 통화가 최초의 시외전화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 통화로 구사일생한 사람은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었다.

또 '3·1 독립선언문' 진품을 볼 수 있으며 무빙텍스트로 그 내용을 쉽게 읽어볼 수 있다.

1948년의 5·10 총선거부터 제헌 국회,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전후 복구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특히 1950년 흥남철수 과정에서 투입된 화물선 메러디스빅토리호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눈길을 끈다. 정원 2000명의 이 배에는 피난민 1만4000명이 승선했지만 거제 장승포항으로 3일간 항해하면서 희생자 없이 순항했다. 오히려 선상에서 5명의 아기가 태어나 희망의 아이콘이 됐다. 2004년에는 '한 척으로 최다 인원을 구출한 배'로 기네스북에 올랐으며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항해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불렸다.

이와 함께 60년대 파독광부 일기에는 30~35도를 오르내리는 지열이 뿜어져 나오는 지하 1000m의 막장에서 석탄을 캐면서 월급 대부분을 가족들에게 송금했던 상황이 묘사돼 있다. 1963~77년 8000여 명의 광부들이 파견됐고, 이들이 고국으로 송금한 돈은 당시 경제성장의 종잣돈이 됐다. 70년대 '중동건설 근로자의 편지'에서도 한국인의 개척정신과 근면성을 엿볼 수 있다.

19세기 말 개항기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근현대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26일 공식 개관된다. 서울 세종로 옛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를 리모델링해 문을 여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7일부터 일반 관람객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가수 윤복희의 67년 미니스커트, 77년 1회 대학가요제 음반, 통기타와 이의 전축, 영화 간판 등은 문화적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2002년 월드컵' 코너는 방음시설이 갖춰진 3m 폭의 큐브로, 5.1채널 입체음향과 화면을 가득 채운 붉은악마들의 영상 속에서 응원용 북으로 응원 체험을 할 수 있다. 대통령 집무책상과 연설대 체험, 사진촬영 등 체험 코너가 풍부하다. 문의 02)3703-9200

/배동호기자 elevan@metroseoul.co.kr

위부터,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 데니태극기, 1930년대 영화 간판, 1950년 흥남철수 때 투입된 메러디스빅토리호 모형.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중1시험 폐지 대신 완화?

문용린 신임 교육감 "내년 3월 부담완화 시범학교 우선 운영"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중학교 1학년 학생 시험 폐지가 사실상 유야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보수 단일후보로 당선된 문 신임 교육감이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교육감은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필고사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시험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며 "내년 3월에 시범 운영한 뒤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모호한 언급을 했다.

선거 기간 확신 있게 강조하던 핵심공약 사항이었고, 그의 임기가 1년6개월이란 점 때문에 이 같은 발언은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시험 폐지에 대해 보수 교육단체들이 반대하고, 진보 단체는 한 영의 입장을 밝혀 배우 이례적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사교육 조장과 공교육 기능의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손충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진로와 적성 탐색에 시간을 두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배동호기자 elevan@metroseoul.co.kr

'서울교육감 2명' 초유 사태 벌어지나

곽노현 '사후매수죄'관련 현재 내일 위헌여부 결정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한 헌법재판소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 판결이 27일 내려진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곽 전 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조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위헌 결정이 나면 곽 전 교육감은 재심을 통해 교육감직 회복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지난 19일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과 함께 교육감이 2명 존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곽 전 교육감은 지난 9월 대법원의 사후매수죄를 인정하는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사후매수죄를 인정하며 곽 전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한 만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

대학 졸업장이 곧 자격증

한양사이버대 청소년학과-미술치료학과 눈길

한양사이버대학교 청소년학과와 미술치료학과가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다.

내년 첫 신입생을 받는 청소년학과는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문화에 중점을 둔다.

청소년학과를 졸업하면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 지도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 청소년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올해 신설된 미술치료학과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교수진과 자격증 맞춤식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온라인 강의와 함께 오프라인 특강도 매 학기 2~3번 이뤄져 미술치료 사례와 재료 기법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한양대 캠퍼스와 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학점 교류도 가능하다.

2013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은 내년 1월 4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go.hanyang cyber.ac.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성희기자

전문대 취업률 일반大 추월

전문대학 취업률이 일반대학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2013학년도 입시에서 전문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학 취업률은 67.8%로 일반대의 65.5%를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특정 분야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특성화 전문대학이 늘면서 나타난 결과다.

실례로 충남 당진의 신성대학교의 제철 산업과는 5년 연속 취업률 95%를 웃돌고 있다. 거제대 조선과는 올해 조선해양 산업의 전문 기술 교육으로 취업률 80.4%를 기록하고 있다.

도시철도 최고의 기업 일등 Metro

지하철에티켓,
나를 위해서 지킵니다

지하철에서의 작은 양보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❶ 열차 내에서 쏟아지는 음료나 냄새 나는 음식물 먹지 않기
❷ (초기)임산부, 어린이 동반자, 장애인에게 자리 내어주기
❸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통화는 작은 소리로 하기
❹ 혼잡한 열차 내에서 큰 가방 뒤로 매지 않기
❺ 열차 내에서 뛰거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기
❻ 객실 내에서 다리를 꼬거나 벌리고 앉지 않기
❼ 역구내, 계단에서 뛰지 않고 천천히 걷기
❽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지 않기
❾ 이동상인에게 물건 사지 않기
❿ 지하철 통로(계단)에서는 오른쪽으로 걷기

서울메트로 1234 콜센터 1577-1234 (전화) 문자 40자 이하) #8272 (사진 동영상 문자)

루돌프 사슴 코 정말 빨갛다

코 끝에 모세혈관 몰려 연구팀 실험 통해 확인

루돌프 사슴 코가 정말로 빨갛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확인됐다.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은 미국 로체스터대학과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메디컬 센터 과학자들이 순록의 코 끝에 사람보다 25%나 많은 모세혈관이 몰려 있어 날씨가 추워지면 순록의 코끝이 빨개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진은 순록 두 마리와 건강한 성인 5명, 코에 용종이 있는 성인 1명 등을 대상으로 러닝머신에서 달리게 한 뒤 혈류를 측정했다.

사람 중 한 명에게는 국소 미세혈관 수축용으로 코카인 100㎎을 흡입하도록 한 뒤에 관찰했다. 그 결과 순록들의 코는 온도측정 영상에 붉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추운 날씨에, 특히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끌고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코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코끝으로 혈류가 몰려들어 전설적인 루돌프의 붉은 코가 된다"며 "이는 땀을 흘리지 않는 순록에게는 코뿐 아니라 몸 전체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today metro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바다 물고기 35년 뒤엔 씨 마른다
- 中 공장 내부서 '싱크홀' 혼비백산
- 저 여자 감옥에 가두는게 내 소원

탕탕탕! 미 '성탄절 악몽'

또 총격사건 3건 4명 사망…NRA는 "총기 규제 법안 결사반대"

사랑이 넘쳐야 할 크리스마스 이브에 총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미국 사회가 '크리스마스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미총기협회(NRA)는 의회에서 발의되는 어떠한 총기 규제 법안과도 싸우겠다고 공언,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오전 5시30분께 온타리오 호수 인근 뉴욕주 웹스터의 주택가에서 마이클 치아페리니(43)와 토머스 카츠오카 등 소방관 2명이 총격을 받아 현장에서 숨지고 다른 소방관 2명 등 3명이 다쳤다.

경찰은 범인인 윌리엄 스펭글러(62)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자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펭글러는 소방관을 유인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으며 집 밖 둔덕에 숨어 있다가 소방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의 한 대형 술집에서도 이날 새벽 총격이 발생해 3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당시 술집에는 600여 명이 모여 있었고 범인은 체포되지 않았다고 시애틀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전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는 여자 경찰 제니퍼 세베나(30)가 순찰 도중 몸에 여러 발의 총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NRA의 데이비드 킨 회장은 CBS에 출연해 "2010년 미 연방수사국(FBI) 발표에 따르면 총기 피살자보다 폭행으로 숨지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야구방망이와 칼을 이용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야구방망이와 칼의 소유를 금지시켜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신이상자나 폭력 비디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잠재적 살인자가 아니듯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잠재적 살인자가 아니다"라며 "총을 가진 나쁜 사람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총을 가진 좋은 사람뿐"이라고 주장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인 25일 호주 시드니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본다이 비치에서 산타 복장을 한 관광객들이 물장구를 치며 즐거워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든 호주 시드니의 이날 최고 기온은 섭씨 23도를 기록했다. /AP 연합뉴스

KOSPI

1983.07 · 1983.06 · 1998.50 · 1980.42 · 1981.82 (+1.40)

12/17 · 12/18 · 12/20 · 12/21 · 12/24

KOSDAQ

485.48 · 483.19 · 479.21 · 476.05 · 483.78 (+5.71)

12/17 · 12/18 · 12/20 · 12/21 · 12/24

Nikkei (일본)
10080.12 (+140.06)
Hang Seng (홍콩)
휴장
Shanghai (중국)
2213.61 (+54.56)
Dowjones (미국)
휴장

EXCHANGE RATE

달러	1073.50
엔 (100)	1271.62
유로	1418.52
위안	172.21

봇물터진 협동조합, 벌써 70곳

이달초 법 시행 이후 하루 6~7개꼴 설립 '열풍'

협동조합 설립이 잇따르고 있다. 이달 초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간 데다 소규모 협동조합이 경제민주화의 대안으로 주목되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2주도 안 된 지난 13일 현재 정부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사회적 협동조합 9곳, 일반 협동조합 61곳 등 7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6~7개 협동조합이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례적인 열풍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한시 조직으로 운영해온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준비기획단을 확대, 전담 조직인 정책조정국 소속의 협동조합정책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신설되는 협동조합정책관은 협동조합정책과, 협동조합운영과, 협동조합협력과로 운영된다. 협동조합정책관 산하 인력은 16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협동조합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이면 손쉽게 설립할 수 있으며 ▲기존 주식회사·비영리 법인과 달리 소액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며 ▲취약계층이 자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에 설립 신고된 협동조합 가운데는 대리운전 생활체 기들, 미용기기, 도시농업, 두부제조업, 음장음식업 등 다양한 분야가 망라돼 있다.

일각에서는 협동조합이 설립되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적어 명맥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재정부는 협동조합 정책 활성화 사업으로 12억77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지만 대부분이 홍보와 교육, 보고서 용역 등과 관련한 지원 예산이다. 또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내놓을 정부조직 개편안도 주목해야 한다.

김성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처럼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협동조합이 아직도 생소하게 생각되는 협동조합 초보국에서 정부의 역할은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LG전자 사운드 승부수 LG전자가 사운드가 강화된 다양한 스마트 AV기기를 다음달 CES 2013 전시회서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모델이 8.1채널 스피커의 홈시어터 사운드바 도킹스피커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박근혜 정부, 부동산 시장에 햇빛"

중개업자 40% "내년 1분기 회복될 것" 전망

전국 중개업자 10명 중 4명 이상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분기에 국내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25일 부동산써브가 18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1211개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 회복 예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 2013년 1분기를 선택한 중개업자가 43.8%(530명)로 가장 많았고, 2013년 2분기 23%(278명), 2013년 4분기 18.3%(222명), 2013년 3분기 12.9%(156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6.7%(808명)가 내년 상반기(1~2분기)에 부동산 시장 회복을 예상해 새 정부 초기 경기부양 등 출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부동산 정책'에는 응답자의 36.1%(437명)가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지원'을 선택했으며 22.5%(272명)는 '부동산 가격 회복'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전월세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 정책' 12.7%(154명), '꽁꽁 얼어붙은 주택거래 활성화' 11.9%(144명),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청사진 제시' 9.4%(114명), '신도시 신규 철도 등 대규모 개발 사업 강화' 3.6%(44명) 등이 나왔다.

/김지성기자

내년 대졸자 신입채용 올해 수준 3만2500명

내년 주요 기업의 대졸 신입직원 채용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취업·인사 포털 인크루트와 함께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채용 계획을 확정한 283개사의 내년 채용 예정 인원이 3만2521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이들 기업이 올해 실제 채용한 3만2936명보다 1.3% 줄어든 수치로 세계경제 침체에도 신규 채용 규모는 그다지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매출액 순위별로는 상위 100위 이내의 기업은 채용 인원을 다소 늘릴 계획이었다. 최상위 30대 기업 중 채용 계획을 확정한 16개사가 내년 신규 채용 인원을 올해 1만3581명보다 2.5% 늘어난 1만3920명으로 늘려 잡았다. 이들의 1개사 평균 채용 예정 인원도 870.0명으로 올해 848.8명보다 21.2명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매출액 순위 100위 이내에 속하는 51개 응답 기업의 채용 예정 인원이 500대 기업 전체 채용 예정 인원의 60.2%에 달해 상위권 기업이 고용 창출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훈기자

구직사이트 서로 '업계 1위'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알바천국 등 주요 구인구직 사이트가 방문자 수를 부풀리거나 근거 없는 자료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들 사이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실을 각 사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잡코리아는 자사의 모바일 웹 조회수(1029만 건)에 계열 사이트인 알바몬의 조회수(4241만 건)를 더해 "월간 5270만 돌파, 모바일에서도 1위"라고 광고했다.

커리어는 실제 방문자 수 1위가 아님에도 구인구직 정보와는 무관한 IT 커뮤니티 사이트 클리앙의 방문자 수를 더해 "2012년 상반기 방문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인크루트는 자료 근거를 밝히지 않고 "직장인 만족도, 인사담당자 채용인재 만족도 1위"라고 광고했다.

알바천국은 "오늘 등록된 채용공고" 알림판에 전날 저녁 올라온 채용공고 수를 더해 채용공고 수를 부풀렸다. /박상훈기자

자영업자 넷중 한명 60세 넘어서 고령화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60세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후 베이비붐세대(1955~63년생·49~57세)가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자영업자의 고령화 현상은 심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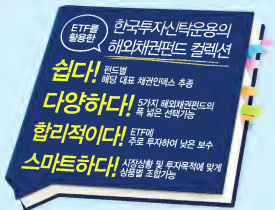
25일 통계청의 비임금근로 부가조사를 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43만8000명으로 지난해 8월(136만3000명)보다 5.5%(7만5000명) 늘었다. 이런 증가율과 증가 규모는 다른 연령대보다 컸다. 30대는 4.5%(3만5000명), 50대는 3.5%(5만9000명) 늘었고 청년층(15~29세)과 40대는 줄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매년 8월 기준으로 2007년 135만3000명에 달하고서 해마다 줄어 2010년 128만6000명까지 줄었으나 지난 2년간은 증가세다.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2007년 22.1%에서 연 0.1~0.4%포인트씩 늘어 2010년 22.8%로 상승했다. 그 후 2011년 24.0%, 올해는 24.8%로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졌다. 지난 8월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13.2%)의 갑절에 가깝다.

환갑을 넘긴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는 129만1000명으로 해당 연령대 자영업자의 90%를 차지했다. 다른 연령대의 1인 자영업자 비중이 30대 62%, 40대 64%, 50대 74%인 점에 견줘 월등히 높다. /박상훈기자 zoe@

한국인의 true friend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2-08016호(2012.11.27~2013.11.26)

"펀드베테랑이 제안하는 손쉬운 해외채권 투자방법"

글로벌 분산투자 채권펀드	글로벌 이머징 채권펀드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펀드	글로벌 투자적격 채권펀드	글로벌 물가연동 채권펀드

[판매사] 한국투자 증권

펀드베테랑-한국투자신탁운용
02)3276-4700 www.kim.co.kr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재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상품은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하시기 전에 환매방법과 보수 등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rue friend 한국투자 신탁운용

"카톡 섰거라" 도전장 낸 '조인'

고령자 전용 암보험 75세도 무심사 가입

라이나생명보험이 국내 최초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질병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상품으로 고안됐다.

61세에서 75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 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 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 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과 갑상선암(갑상선암보장 개시일 이후 진단확정 받은 경우)은 진단확정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200만원을 보장 받는다. 단 보험 가입 후 만 2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위의 보장된 치료보험금의 50%가 지급된다. 문의(080)951-8585 /박상훈기자

이통3사 손잡고 새 모바일메신저 개발·출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U+) 등 이동통신 3사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대항마를 26일 출시한다.

문자와 채팅, 파일 공유를 할 수 있는 신개념 통신서비스 '조인'이 주인공이다. 조인은 앱을 내려받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조인을 이용하면 주소록에 등록된 지인의 생일과 대화 가능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주소록에서 바로 문자나 채팅으로 말(5000자)을 걸거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통할 수도 있다. 그룹 채팅도 가능하다. 음성통화 중 상대에게 주변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고, 동영상·사진·위치 정보, 기프티콘 등 첨부파일을 최대 100MB(메가바이트)까지 전송할 수 있다.

조인이 카톡과 다른 점은 피처폰(일반 휴대전화) 이용자와도 장벽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인에서 보낸 채팅 메시지가 피처폰 이용자에게 전송되면 해당 메시지는 자동으로 문자(SMS, MMS)로 전환된다. 스마트폰 이용자와 채팅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데이터 연결이 끊겼다면 자동으로 문자로 대화할 수 있다.

요금은 기본적으로 유료이지만 SK텔레콤이 내년 5월까지 앱을 내려받는 고객에게 채팅 서비스를 평생 무료로 제공하는 만큼 사실상 공짜라 할 수 있다.

보조금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는 이통 3사가 모처럼 손을 잡은 이유는 카톡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통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카톡 등장 이후 이통사의 문자메시지 수익은 급감했고 인터넷 전화의 등장으로 이동통신이라는 본연의 서비스마저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이미 카톡이 게임, 쇼핑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의 유료화에 성공해 '조인' 역시 이통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

국내 이통사 관계자는 "조인이 활성화되면 이통사는 기지국 설치·유지 여력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훈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이통3사는 26일 차세대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조인'을 출시한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단말기에서 음성통화, 문자, 채팅, 사진, 영상, 위치공유 등 각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통합해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KT제공

'보조금 과다' 이통3사 1월 7일부터 차례로 영업정지

보조금 출혈 경쟁으로 중징계를 받은 이동 3사 대리점과 판매점이 울상을 짓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이통 3사에 과징금과 함께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 금지 처분을 내리면서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통 3사는 위반율, 즉 보조금 법적 상한선인 27만원 이상을 초과 지급한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내년 1월 7일부터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에 차례로 금지된다. 가입한 이통사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다른 기기로 갈아타는 보상판매 등 기기변경 고객만 받을 수 있다. 기간은 LG유플러스가 24일, SK텔레콤와 KT가 각각 22일, 20일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수많은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영업 차질을 빚게 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7일 기준으로 전국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각 4463개와 38527개에 달한다.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 금지를 앞두고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대리점 업주는 "신규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면 매출이 30~40%가량 떨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박상훈기자

보이스캐디 'VC200' 대한항공 기내 면세

음성 안내 GPS 골프거리 측정기 '보이스캐디'의 제조사인 유컴테크놀러지는 대한항공의 기내 면세점에서 보이스캐디의 대표 제품 'VC200'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달 출시 20개월 만에 누적 판매 20만 개를 돌파한 보이스캐디는 버튼만 누르면 목소리로 홀까지의 남은 거리와 샷의 비거리를 알려주는 제품이다.

국내 400여 개, 해외 2만5000여 개에 달하는 골프장을 지원, 국내외에 존재하는 골프장 코스의 대부분을 안내해 거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골퍼나 스코어를 3~5타 줄이고 싶은 골퍼, 그리고 해외 골프 여행시 캐디들과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이스캐디 가격은 VC200 기준 99달러(기내 면세점가)이다. 문의 070-4243-8301 /박상훈기자

스마트&그린 건설산업 – GS건설 에너지절감형 하우스 '그린 스마트자이'

'전력난 제로' 미래주택 현실로

올 겨울 한파로 전기 난방이 급증하면서 최악의 동절기 전력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개발 중인 에너지 절감 기술이 빛을 발하고 있다.

GS건설은 2009년 서울 서교동에 '그린 스마트자이' 홍보관을 개관하고 최첨단 그린기술 개발의 첫 단계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친환경 미래 주택 건설에 본격 착수했다.

'그린 스마트자이'는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기술이 적용된 에너지 절감형 미래 주택으로 태양에너지, 바람 등 신재생에너지로 총량관리해 탄소를 발생시키는 기존 전기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GS건설은 또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기술연구소에서 미래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주거단지 '쓰리제로하우스'를 개발 중이다.

이곳에서는 태양광을 통한 세대의 전력 공급 및 차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태양광 차양 시스템과 에너지 절약형 아이템인 특수 창호, 실내 냉·난방비 절감에 큰 효과를 기대할 단열 시스템 등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에너지 절감 신기술들은 신규단지에도 적용되고 있는 중이다. 대구에서 분양 중인 '대신센트럴자이'와 경북 안동에서 분양중인 '안동센트럴자이'에 '그린스마트자이'가 적용돼 입주민들은 일괄 소등 스위치, 태양광 가로등, 고효율 이중 창호 등으로 에너지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박상훈기자

'그린 스마트자이' 주거단지 모형.

우편물, 집에서 부친다 내년 방문접수 서비스

내년부터 집에서도 우편물을 부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직원이 신청인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해 우편물을 접수하는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험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방문접수 신청 우편물은 휴무일을 제외한 다음날 우체국 직원이 약속 장소에서 수령해 접수한다. 시범 대상 지역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6개 도시다. 수수료는 25g 기준으로 1통에 1000원, 10통에 6000원, 100통에 1만원 등 통 수에 따라 적용되며 100통 초과 시에는 초과하는 1통부터 수수료를 다시 적용한다. 우편요금은 1통당 일반 270원, 등기 1900원이 별도 부과된다.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신청은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에 하면 된다.

30만명을 덮친 인류 최대 쓰나미!
이것은 실화다!
2013년 감동 실화 블록버스터
이완 맥그리거
더 임파서블
THE IMPOSSIBLE
나오미 왓츠
1월, 모든 것이 사라진 그 날을 확인하라!
가적의 대국민 시사! 그 스케일과 감동을 직접 확인하라!
12월 26일 / 전국 5개 도시 개최

겨울방학 공연할인 '신난다'

영어 교육 전문기업 윤선생(www.yoons.com)은 겨울방학을 맞아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개최한다.

먼저 음악 연극 뮤지컬 뉴대 의 티켓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할인 쿠폰은 윤스닷컴 이벤트 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전화 예매한 뒤 공연 당일 출력한 쿠폰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할인 혜택은 1매 4인까지 받을 수 있다. 공연은 내년 1월 27일까지 서울 대학로 소리아트홀 1관에서 열린다. 문의 02-766-6007

같은 기간 가족 뮤지컬 '고추장 떡볶이'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윤스닷컴에 회원 가입만 하면 15%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티켓 할인을 받으려면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때 '윤선생 회원쿠폰할인'을 선택한 뒤 결제해야 하며 사전 예매를 했더라도 출력한 할인 쿠폰을 현장에 지참해야만 실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영어쓰기실력 뽐내기' 행사

윤선생은 회원의 쓰기 실력 향상을 위한 'My Writing 뽐내기' 이벤트를 내년 1월까지 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총 6개의 NEAT Writing 스탬프를 모아야 하는데 스탬프는 Writing 교재 한 권을 완료할 때마다 1회씩 받을 수 있다. 6개의 스탬프를 다 모은 회원에게는 이벤트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나의 도전 주제'에서 본인이 도전할 주제를 우선 선정한 뒤 직접 작성할 글을 사진으로 찍고 발표 모습을 촬영하여 이벤트 게시판에 올리면 자동 응모된다.

우수작은 발음 억양 유창성 표현력 문법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가 평가한 점수와 친구들의 '좋아요' 추천 점수를 합산해 내년 2월 8~17일에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스마트하게 '영어구멍' 메워주죠

윤선생 '스마트 베플리' 개발한 이재욱 수석연구원

디지털 교과서와 스마트 교육,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입학사정관제 등 시시각각 바뀌는 교육 정책은 사교육 시장에도 큰 변화를 몰고 왔다. 모두가 스마트를 외치며 학습 매체를 스마트 기기화 하고 있는 가운데 윤선생은 정부 스마트 교육에 기반한 지능별 맞춤 학습 시스템 '스마트 베플리'를 선보였다. 이를 개발한 윤선생 이재욱(사진) 수석연구원으로부터 진정한 스마트 맞춤 교육에 대해 들어봤다.

영어사교육 '전문어학원→개인맞춤형' 변화와 정부 스마트교육 방향에 최적화된 학습시스템

▶ 최근 사교육 시장 트렌드는

▶▶ 2년 전만 해도 자녀를 영어 전문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가 많았다. 실제로 약 10조원 가까이 되는 전체 사교육 시장에서 영어 전문 어학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할 정도였다. 하지만 2012년에 들어 이러한 비율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학원은 큰 폭으로 줄고, 교습소나 공부방처럼 소규모 형태의 교육 서비스가 늘고 있는 것이다. 즉 학부모 니즈가 점차 소형화·개인화된 맞춤 교육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 이러한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 영어 전문 학원은 보통 학생 개개인의 레벨에 따라 클래스가 편성되는데, 클래스마다 일반적으로 상위 3~4등 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업을 진행한다. 그러다 보니 10등 이하의 아이들은 자신보다 높은 수준의 수업을 어쩔 수 없이 듣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놓치는 부분이 발생한다.

▶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교육'은 무엇인가

▶▶ 'SMART'는 S(Self-directed·자기주도적으로) M(Motivated·흥미롭게) A(Adaptive·내 수준과 적성에 맞는) R(Resource-enriched·풍부한 자료와) T(Technology-embedded·정보기술을 활용해) 공부하는 것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풍부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해 개별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활동을 제공하는 교육이다.

▶ 윤선생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 윤선생의 교육 철학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울 때는 반드시 소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인데 이는 곧 EFL환경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인풋이 적기 때문에 네이티브와는 다른 접근 방법으로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사가 올해 출시한 '스마트 베플리'는 국내에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커리큘럼과 시스템 중 '스마트'가 가장 최적화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스마트 베플리'란 무엇인가

▶▶ 정부의 스마트 교육 콘셉트를 영어 교과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해서 만든 지능별 맞춤 학습 시스템이다. 바로 이 부분이 타사 영어 교육 프로그램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 구체적 기능이나 강점은

▶▶ 우선 '학습 결과에 따른 학습량 자동 조절' 기능을 들 수 있다. 만약 어제 학습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어제 배운 내용부터 먼저 복습한 뒤 이를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만 오늘 본학습이 가능하다. 반면 어제 학습 결과가 좋았던 아이는 오늘 곧바로 본학습으로 들어가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과거 우리 세대가 이른바 '깜지'(빽빽이)로 영어 단어를 외웠던 것처럼 학습 과정에서 '반복'은 필수다. 단 효율적으로 반복해야 효과가 있다. 예전에는 아는 단어든 모르는 단어든 무조건 반복시켰다면 스마트 베플리는 모르는 부분에 한해 반복시키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수준별 학습법'도 내세울 만한 특징이다. 같은 교재로 공부하는 학생일지라도 개인별 수준에 따라 다른 방법을 적용하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데, 스마트 베플리는 상·하모드 선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습 레벨이 '하'일 경우에는 자막을 보며 따라 읽을 수 있고, 상 레벨의 아이는 자막 없이 들리는 대로 소리를 기억했다가 따라 읽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아이들이 학습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이는 곧 동기부여로 이어진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샤우트WE 이색송년회 퓨전요리대회 신선하네

연말을 앞두고 기업들의 이색 송년회가 화제다. 단순한 술자리보다 의미 있는 이벤트를 마련해 직장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업 '샤우트 웨거너 에드스트롬(이하 샤우트WE)'은 최근 송년회를 대신해 '세계 퓨전 요리대회'를 진행했다.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샤우트WE의 지사 및 파트너사의 음식을 경험해보고자 마련된 행사로, 직원들은 중국·일본·프랑스·미국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요리를 선보였다.

특히 요리 중간에 특별 미션을 수행하는 등 색다른 송년회를 즐기며 한 해 동안 누적된 피로를 풀어냈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특별한 부상을, 순위권 밖의 팀에게는 다양한 벌칙을 줘 경쟁의 재미를 더했다.

샤우트WE의 성지혜 사원은 "모두가 참여하는 요리대회를 통해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됐다"며 "벌써부터 내년 송년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말 모임을 '나눔'으로 대신하는 기업도 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문기업 '현대엠엔소프트'는 서울 마포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병장수 기원 함초 만들기'를 진행했다. 사원들이 정성껏 만든 현연 향초에 희망 메시지를 담아 노인들에게 전달하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지원기자

취향따라 외쳐! "3, 2, 1, 0"

쇼핑몰·스키장·호텔… 새해 '카운트다운 파티' 손짓

곤지암 리조트

하얏트리젠시 제주

타임스퀘어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마법 같은 시간. 31일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카운트다운 파티'가 있어 가능하다. 콘서트·불꽃놀이 등 신나는 이벤트 덕에 자정까지 기다리느라 졸린 눈을 비벼댈 틈이 없다.

31일 밤 서울 영등포 일대는 노랫소리로 들썩일 예정이다. 복합쇼핑몰 경방 타임스퀘어는 이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카운트다운 서울 2013@타임스퀘어'를 진행한다. '형돈이와 대준이'를 비롯해 'DJ DOC' '다이나믹 듀오' 등 정통 힙합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을 펼친다.

제주에서는 2013개의 풍선이 하늘로 오른다. 하얏트 리젠시 제주는 2013년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호텔 로비 천장에 풍선을 띄우는 새해 전야 파티를 벌인다.

럭셔리한 호텔에서 우아하게 보내는 건 어떨까.

밀레니엄 서울힐튼의 영국풍 바 '오크룸'은 오후 6시부터 두 시간 반 동안 '송년 카베리 뷔페'를 선보인다. 이날 오크룸은 삼족인을 상징하는 금색과 검은색으로 꾸민다. 뷔페가 끝난 뒤에는 팔리핀 듀오 '스위트 서울'의 음악을 라이브로 감상하며 카운트다운 파티를 즐길 수 있다.

스키 리조트들이 준비한 카운트파티 행사는 보다 화려하다.

평창 휘닉스파크는 '아듀 2012 송년 콘서트 와 디제잉쇼 파티'를 준비했다. 스키 강사들이 횃불을 들고 슬로프를 내려오는 횃불스키 퍼포먼스가 하이라이트. 불꽃축제와 보신각 타종식 중계 등 다양한 이벤트로 올해를 마감한다.

경기도 광주 서브원 곤지암리조트에서는 신나는 락공연으로 새해를 맞는다. 노브레인과 락타이거즈, 테디보이즈 등이 게릴라 콘서트를 벌이고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소망풍선 날리기 등이 차례로 열린다. 자정에는 화려한 불꽃이 스키장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홍천 비발디파크 스키장은 오후 11시에 콘서트·불꽃축제·횃불스키 이벤트를,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는 라쿠펀드·에피톤 프로젝트 등 홍대클럽 인디밴드 공연을 열 계획이다. 스키장은 없지만 속초 한화리조트도 새해 맞이 불꽃놀이와 소원 풍선 날리기로 분위기를 띄운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한국의 노벨의학상' 성천상 제정

JW중외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이 JW중외제약 창업주인 고 성천(星泉) 이기석(사진) 사장이 평생 실천했던 생명 존중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성천상'을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다.

'성천상'은 생명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헌신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하면서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한 상이다. 수상자에게는 의료계 사회봉사 분야 시상 중 가장 큰 규모인 1억원의 상금이 제공된다.

고 성천 이기석 사장은 1945년 조선중외제약소(현 JW중외제약)를 창업한 뒤 '제약구세'의 일념으로 의약품 개발에 전념해 1959년 당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수액제를 국산화하는 등 국내 치료 의약품 산업의 초석을 다진 제약인이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은 내년 1월 말까지 주요 의료단체 기관으로부터 성천상 후보자를 추천받아 이성낙 가천대학교 명예총장 등 의료계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성천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JW중외그룹이 창립 68주년을 맞는 내년 8월경 시상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호 JW중외그룹 회장은 "고인이 평생 강조해온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성천상을 제정했다"며 "성천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며 참인술을 실천하고 있는 의료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지기자

인심 후한 강강술래 "또 쏩니다"

베스트셀러 연말파격가 곰탕세트 할인+육포 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올해 가장 잘 팔린 '베스트셀러 상품'을 이달 말까지 큰 폭으로 할인해 판매한다.

온라인 쇼핑몰(www.sulm.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한우사골곰탕(800ml 5팩 15인분) 선물세트를 30% 할인된 4만3900원에 판매하며 구매 시 쇠고기육포 3봉(1만8000원)을 덤으로 준다.

곰탕과 육포 모두 HACCP 인증을 받은 화령단 위생시설에서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넣지 않고 생산된 제품이다.

강강술래 인기 메뉴로 구성된 송년세트A(한우불고기500g+강경양념갈비 800g)와 송년세트B(한우불고기 500g+왕양념갈비 2대)도 각각 35% 할인된 5만원에 판다.

모든 매장에서도 테이크아웃용 곰탕 선물세트 30% 할인과 육포 덤 증정 행사를 함께 벌이며 상계점은 한돈양념구이(500g) 포장상품을 50% 할인된 1만5000원, 한우양념불고기(500g)를 67% 할인된 1만원에 제공한다.

서초점은 주중 모후 8시30분 이후 한우모듬구이·왕양념갈비·광양불고기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 증정한다. 주중 오후 9시 이후에 역삼점은 왕양념갈비·솔래양념구이, 신림점은 솔래양념구이, 시흥점은 한돈양념구이·돼지양념구이 2+1 행사를 벌인다.

주말과 공휴일에 여의도점과 서초점에서는 한우 종합 왕양념갈비·한우광양불고기·한우모듬구이를, 역삼점은 왕양념갈비 메뉴를 대상으로 '2+1' 행사를 벌인다.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올해를 빛낸 탤런트 1위

올 한 해를 빛낸 최고의 탤런트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송중기가 선정됐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벌인 조사에서 송중기는 18.2%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다. 그는 KBS2 수목극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와 영화 '늑대소년'으로 700만 관객을 모으며 여심을 자극했다.

단독 콘서트 매진… 1회 더

국내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는 보아가 1회 추가 공연을 결정했다.

다음달 26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보아 스페셜 라이브 2013-히어 아이 엠'의 모든 티켓이 매진돼 27일 한 차례 더 공연하기로 했다. 추가 공연 티켓 예매는 27일 오후 8시 G마켓에서 시작한다.

방송 3사 연말 시상식 MC

소녀시대 윤아(사진 왼쪽)·수영(오른쪽)·서현이 차례로 방송 3사의 연말 시상식 MC로 나선다.

윤아가 28일 'KBS 가요대축제'에서 정용화·성시경과 호흡을 맞추는 데 이어 수영은 SBS '연예대상', 서현은 MBC '가요대제전'의 진행을 맡는다. 한편 소녀시대는 26일 정규 4집 타이틀곡 '아이 갓 어 보이'의 티저 영상을 공개하고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기태영·이현진과 한식구

배우 홍수아가 새로운 소속사에 둥지를 틀었다.

홍수아는 기태영과 이현진이 소속돼 있는 제이스타즈 엔터테인먼트와 최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여 대중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루시아(본명 심규선·26)가
한층 풍성해진
음악적 볼륨감을
새 앨범에 드러냈다
첫 번째 미니앨범
'데칼코마니'는
자신의 내면을
투명한 음악으로 채워냈다
작가주의적 화법과
세련된 음률에서
비로소 그의 진가가 엿보인다

앨범 '데칼코마니'로 홀로서기 성공한

루·시·아

이번 노래 100% 리얼한 내 인생

#고교때 가수의 길… 고전이 음악에 큰 영향

최근 2~3년간 1인 밴드 겸 인기 프로듀서인 에피톤 프로젝트의 공연에 단골 게스트로 참여하면서 여성 멤버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첫 정규앨범 '자기만의 방'에는 에피톤 프로젝트가 쓴 곡이 9곡이나 실렸다. 이런 든든한 조력자와 작업하던 루시아는 1년여 동안 음악적 정체성을 고민했고, 이번 앨범으로 마침내 완벽한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에피톤 프로젝트의 음악을 내 목소리로 표현했었다면 이제는 직설적으로 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전작이 섬세한 여성의 감성을 노래했다면 이번 음악들에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20대 후반 여성의 이야기를 좀 더 섬세하고 아름답게 표현했죠."

10개 수록곡을 모두 작사·작곡한 만큼 자신의 내면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100% 제 얘기예요. 만들어낸 이야기를 부를 때는 듣는 사람이나 저나 모두 공감하기 어렵거든요. 순수한 내 이야기를 나의 화법으로 작업해 처음 세상에 내보내는 뜻깊은 앨범이에요."

그의 음악에 담긴 매력 중 하나는 문학적 가사다. 글을 읽기 시작했던 유년기부터 꾸준히 읽어왔던 고전들이 지금 음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셰익스피어와 릴케, 슈테판 츠바이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버지니아 울프도 좋아해 지난 앨범 제목인 '자기만의 방'도 그의 작품에서 따왔죠."

20대 여성 얘기
더 섬세하 표현

홍대 여신요?
홍대 여식이죠

고등학교 2학년까지 미술을 전공한 것도 지금 음악에 예술적 감성을 더했다.

"중2 때부터 전국에서 열리는 온갖 가요제에 출전했어요. 거기서 받은 상금으로 미술 재료를 사곤 했어요. 그러다가 고2 때 실용음악 학원에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가수의 길을 준비했죠. 당시에 2AM의 창민이 같은 학원에 다녔고, 2NE1의 우영이와 에이핑크의 정은지는 제가 강사로 있을 때 학생으로 등록한 친구들이었어요."

#배우 최강희·개그우먼 박지선도 게리 팬

루시아의 음악은 유명인들 사이에서도 화제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과 영화 '가비'의 원작을 쓴 김탁환 작가, 배우 최강희, 개그우먼 박지선 등은 팬임을 밝히며 자발적으로 그의 음악을 홍보했다. 대선배인 김건모는 루시아의 곡을 우연히 듣고 "내 노래를 불러보게 하고 싶다"며 KBS2 '불후의 명곡' 무대에 서게 했다.

배우 공유는 루시아의 새 앨범이 발표되자마자 자신의 공식 팬카페에 "아무래도 이달의 앨범은 루시아의 데칼코마니. 너무 좋네. 공유합시다"라고 추천하며 "개인적으로 어냐고? 그러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애정을 드러냈다.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우! 좋죠. 특히 아버지가 좋아하시더라고요. 공유씨 팬들까지 덩달아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스타 파워를 더욱 실감했어요. 저도 요즘은 공유씨가 모델로 나오는 커피만 마신답니다. 후후. 노래 실력도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꼭 곡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빼어난 외모를 지녀 '홍대 여신'이라는 별명을 지닌 그는 "타루, 오지은씨 같은 분들이 '홍대 여신'이지 저는 홍대 앞에서 음악을 한 적도 없다. 단지 홍대 근처에 살 뿐인 '홍대 여식'"이라며 "다음달 중순에 첫 단독 콘서트를 열고 좀 더 대중과 가까이 만나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디자인/박선영

최강창민 '강호동의 남자'

새 예능프로 공동MC 호흡

동방신기의 최강창민이 '강호동의 남자'로 뜬다.

그는 KBS가 강호동을 앞세워 내년 초 방송 예정인 새 예능 프로그램에 공동 MC로 낙점됐다. 그동안 일부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한 적은 있지만 고정 출연하는 것은 2004년 데뷔 이후 9년 만이다.

방송가에서는 최강창민이 '포스트 이승기'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훤칠한 외모에 모범생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를 잘 아는 지인들 사이에서는 엉뚱하면서도 빼어난 예능감을 인정받고 있어서 이승기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강창민은 최근 새 앨범 출시 당시 인터뷰에서 "예능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출연해 기존 이미지를 깨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한 바 있다.

/유순호기자

시크릿 복귀… 징거는 제외

교통사고로 활동을 중단한 시크릿이 연말 가요 특집 프로그램으로 복귀한다.

소속사는 25일 "시크릿이 28일 KBS '가요대축제', 29일 SBS '가요대전', 31일 MBC '가요대제전'에 차례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타박상을 입어 통원 치료를 받으며 완쾌 단계에 이른 전효성·한선화·송지은 등 세 멤버만 무대에 선다. 갈비뼈에 금이 가고 폐에 멍이 들어 4주 진단을 받은 징거는 제외됐다. 최근 퇴원한 징거는 통원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할 예정이다.

신곡 '토크 댓'을 발표했던 시크릿은 11일 교통사고를 당해 1주일 만에 활동을 접었다.

/유순호기자

"수지 성희롱 사진 못 참아"

JYP 네티즌 고발… 경찰 수사 착수

성희롱 피해를 입은 미쓰에이의 수지가 결국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수지를 성희롱하는 듯한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JYP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는 물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 혐의를 주장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하나씩 검토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JYP는 최근 수지를 성희롱하는 듯한 악의적인 사진이 트위터와 온라인에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수지가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만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트위터와 인터넷에 확산된 사진에는 한 남성이 수지의 실사 모습이 담긴 입간판을 쓰러뜨린 채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팬들을 분노하게 했다. 이 남성은 사진을 수지에게 트위터 멘션으로 전송했으며, 해당 사진과 함께 전라도 출신을 비하하는 듯한 글로 논란을 가중시켰다.

논란이 일자 이 남성은 해당 게시물과 함께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다.

JYP는 4월에도 원더걸스 멤버인 소희의 트위터에 음란성 글을 지속적으로 담긴 네티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 네티즌은 지난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죄 혐의로 구속됐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나가수2' 후속 '아빠 어디 가' 김성주 등 출연

시청률 숙원 을 마친 MBC가 '나는 가수다2' 후속 프로그램으로 '아빠 어디 가'의 출격 준비를 끝냈다.

아빠와 자녀의 오지 여행기를 담은 리얼 버라이어티로 방송 관계자는 "엄마가 없다는 불편함, 문명과 떨어진 낯설 속에서 아빠와 아이가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주 전 MBC 아나운서를 비롯해 배우 성동일·이종혁, 스포츠 해설가 송종국 위원, 가수 윤민수가 자녀들과 함께 21일 강원도 홍천에서 1박2일 촬영을 마쳤다.

한편 MBC 최장수 예능 프로그램 '공감토크쇼-놀러와'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종영됐다. 지난 8년을 돌아보는 시간도, MC들의 끝인사도 없이 자막 한 줄로 종영을 알린 마지막 장면에 네티즌은 "MBC 예능 진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권보람기자

김창렬 이효리 수애

수애 1억원 기부하고… 김창렬 자선 포차 열고…

따뜻한 스타들

연예계 스타들이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크리스마스 시즌과 연말을 훈훈하게 데우고 있다.

배우 수애는 2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하고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200번째 회원으로 가입했다. 아버지가 구두 수선을 하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의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달동네 독거노인들에게 직접 만든 털모자를 선물해 화제를 모았던 이효리는 "버려진 동물들 더 열심히 돕고, 외로운 어르신들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나부터 좀 더 나누고 살아야 으쌰 으쌰 되어질"이라고 다시 한번 봉사 의지를 다졌다.

가수 김창렬은 26일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꿈자락장'에서 불우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 자선 포장마차를 연다. 개그맨 한민관, 그룹 원더보이즈 등 벤터 102 소속 연예인들이 직접 서빙을 할 예정이다.

최란·이충희 부부 역시 같은 날 아동복지센터 '꿈을 키우는 집' 아동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선물을 나눠주고, 신명보육원과 성라지로 마을 등의 시설에도 겨울 온돌 담요와 생필품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스타와 팬들이 함께한 기부도 이어졌다. 김남길·박해일 팬들에 이어 2PM 닉쿤, 올림피셔센 신승훈, 김재원의 팬들이 쌀 화환을 통해 불우이웃돕기 행렬에 동참했다. /박진영기자

'타워' 발화점 장면 왜 더 실감나나 했더니…

영화 '타워'에서 불과 싸우는 장면을 연기한 설경구. 오른쪽은 제작진이 실감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특수 제작한 실제 크기 모형.

CG 아닌 헬기 앞부분 모형 트럭에 '합체'

재난 블록버스터 '타워'의 실감 나는 발화점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CG) 대신 제작진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져 화제다.

이 장면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인공눈을 뿌리던 헬기가 갑작스러운 상승 기류로 108층 주상복합건물 상층부에 곤두박질치는 모습을 담았다. 충돌로 불이 일어나고, 건물에 갇힌 사람들은 화마와 사투를 벌이게 된다.

연출자인 김지훈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은 고심 끝에 실사 촬영을 결심했다. CG로 처리하면 리얼리티가 자칫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건물로 돌진하는 헬기를 미니어처가 아닌 실제 크기로 촬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래서 머리를 모아 짜낸 아이디어가 원래 사이즈와 비슷하게 제작한 헬기 앞부분의 모형을 용접으로 트럭 앞에 '씌우는' 방법이었다.

한 제작진은 "물론 빌딩 외형 등 많은 장면이 CG에 의해 탄생됐지만, 적어도 발화점 장면만큼은 우리의 손때가 묻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NG가 일어나면 재촬영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스태프 모두가 극도로 긴장한 가운데 촬영을 진행했다. 다행히 결과가 좋아 좀 더 리얼한 영상을 담아낼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소방관 강영기 역의 설경구는 "불과 싸우는 장면은 세트장에 4층짜리 철골 구조물을 제작한 뒤 대부분 실사로 촬영했다"면서 "소방관으로 출연한 배우들 대부분이 촬영 중 유독가스로 많이 고생했다"고 당시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wind8686@naver.com

2편의 명작 '2색 매력'

레미제라블' '호두까기 인형' 무대·스크린 동시 선봬

두 편의 명작이 무대와 스크린을 통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동시에 선보여져 눈길을 끈다.

세계 4대 뮤지컬로 꼽히는 '레미제라블'이 대구에서 공연 중이다. 지난달 용인에서 막을 올린 이 작품은 내년 2월 부산을 거쳐 4월 서울 무대에 오른다. 1985년 영국 런던 초연 후 27년 만의 첫 한국어 공식 공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달 말까지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연극으로도 공연된다.

19일 휴 잭맨 주연의 영화로도 개봉됐다. 뮤지컬을 바탕으로 할리우드 배우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스크린에서 감상할 수 있다. 200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등 거대한 스케일은 한정된 무대의 뮤지컬과 다른 점이다.

국립발레단·유니버설발레단·서울발레시어터는 원작 소설에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을 입힌 발레극 '호두까기 인형'을 이달 말까지 공연하고 있다.

다음달 3일엔 이 발레극을 토대로 한 영화 '호두까기 인형 3D'가 개봉한다. 발레곡을 대중적으로 편곡하고, CG를 통해 날아오르는 장면을 삽입하는 등 무대에서 볼 수 없는 장면들을 창조한 점이 특징이다.

/박잔환기자

박용우 '화이' 특별출연…비리형사 변신

박용우(사진)가 새 영화 '화이'에 특별 출연한다. 그는 이 영화에서 잔혹 무도한 성격의 석태(김윤석)가 리더인 범죄조직과 내통하는 형사 창호를 연기한다. 비리 형사는 2007년작 '뷰티풀 선데이' 이후 두 번째다.

출연 분량은 적지만 흔쾌히 합류를 결심한 이유는 높은 완성도의 시나리오 때문이다. 또 데뷔작 '지구를 지켜라'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던 연출자 장준환 감독에 대한 믿음도 한몫했다.

/조성준기자

What's Hot

경기도 가평군이 다음달 4~27일 '제4회 자라섬씽씽겨울축제'를 개최한다. 축제장은 재밌는 손맛과 스토리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송어얼음 낚시터 6곳과 눈썰매, 전통 썰매 등을 할 수 있는 겨울놀이터, 슬라이딩 툴링, 아이스하키 등 참여형 체험을 즐기는 겨울레포츠공항으로 이뤄져 있다.

툴기어 프리미엄 월넛주 호가든은 크리스마스 파티 등 행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겨울 한정 스페셜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번 스페셜 패키지는 호가든 전용 잔의 육각형 모양을 모티브로 한 눈꽃 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호가든 병맥주(330ml) 6병과 초콜릿 크래커로 구성됐다. 롯데마트 및 롯데슈퍼,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판매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2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제2회 IBK저축왕 시상식'을 열고 저축 실적이 우수한 고객 5명과 학교 5곳을 선정해 포상을 실시했다. 개인 부문 수상자에게는 LED TV와 부부 동반 여행상품권 등을 증정했으며 각 학교에는 LED TV 등을 부상으로 수여했다.

KFC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실속 있게 구성된 '해피패밀리버켓'을 출시했다. 해피패밀리버켓은 바삭한 식감과 촉촉하고 매콤한 맛을 자랑하는 KFC의 인기 메뉴 중 하나인 핫크리스피치킨 8조각(한 마리)과 스위트칠리소스로 구성돼 가족 홈파티 음식으로 실속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쟈뎅 핫초코' 한잔이면 겨울도 포근

입안 가득 부드러운 맛

지방의 뮬스타를 까페모리 핫초코렛과 까페모리 화이트 초코는 대표적인 프리미엄 핫초코 제품이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선보인 뮬스타의 까페모리 핫 초코렛은 품질이 우수한 네덜란드산 프리미엄 코코아 분말에 풍부한 밀크 맛과 거품을 살려 입안 가득 부드러운 핫초코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까페모리 화이트 초코는 풍부한 화이트 카카오 버터 맛에 은은한 향을 더해 부드러움을 극대화한 프리미엄 화이트 초콜릿을 만끽할 수 있다.

한편 부드럽고 달콤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은 '핫초코'는 올 겨울 더욱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고품질 원료를 사용해 진하고 부드러운 프리미엄 핫초코를 맛볼 수 있는 제품, 시럽이나 견과류 등을 추가해 색다른 맛을 제공하는 제품 등 한층 다채로워진 것. 올 겨울 맛과 품질을 더해 업그레이드된 핫초코 음료를 추천한다.

손안의 휘닉스파크 '휘팍타운'

할인 쿠폰 담은 앱 출시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가 리프트, 워터파크 할인은 물론 마일리지 적립 및 각종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는 멤버십 애플리케이션 '휘팍타운'을 출시했다.

휘팍타운은 스키장, 워터파크 등 휘닉스파크의 다양한 시설들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휘닉스파크의 멤버십 애플리케이션이다. 고객들은 저렴한 금액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이용 금액에 따라 스탬프(마일리지)가 적립, 누적된 스탬프를 이용해 리프트 또는 블루캐니언 할인권 및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멤버십 종류는 '게스트', '매니아', '마스터' 등 총 3단계 등급으로 나뉘져 있다. '게스트' 등급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리프트 20%, 블루캐니언(워터파크) 15%, 식음부대업장 10% 등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가루상도 '원숭이학교' 갑니다

aT센터 공연서 사인회

부안원숭이학교 자연사박물관은 22일부터 2013년 2월 11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원숭이학교 서울공연' 행사를 개최한다.

총 약 8000㎡ 규모로 올 겨울방학 최대 규모의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원숭이학교 서울공연에는 기존 부안 원숭이학교의 모든 원숭이들과 프로그램을 그대로 서울 aT센터로 옮겨와 펼쳐지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편하게 부안원숭이학교의 재미와 감동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다.

원숭이학교 프로그램에는 원숭이들의 예절교육과 체육시간을 비롯해 산수문제를 풀고 전로 식당을 하는 등 원숭이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원석, 보석, 화석들을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행사 개막 당일인 22일에는 KBS 개그콘서트 '멘붕스쿨'의 가루성 캐릭터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개그맨 박성호의 팬사인회가 열린다.

한국장학재단 '교육메세나탑' 수상

부산시교육청 등 주관

한국장학재단은 20일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5회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했다.

교육메세나탑은 부산시교육청·부산시·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일보가 주관하여 국제신문·부산MBC·KBS부산방송총국·KNN이 후원하는 행사로,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혜택을 이끌어낸 우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장학재단은 부산대, 부산교대 부경대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생 멘토 2500여 명이 총 고교생 멘티 4000여 명에 대한 학습 지도와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는 대학생 지식 봉사를 통해 부산지역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부산지역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다가오는 겨울방학에 소외 지역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4박5일 동안 지식봉사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개념 폰 액세서리 '삼성 텍타일' 놀랍네

삼성전자가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폰 액세서리 '삼성 텍타일(TecTiles)'을 국내에 출시한다.

삼성 텍타일은 1KB의 메모리를 탑재한 NFC 스티커로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이나 기능 등을 미리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스마트폰에 갖다만 대면 곧바로 작동하게 되는 역할을 한다.

사용자는 삼성 텍타일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기능을 설정하고 이를 NFC를 통해 스티커에 저장하기만 하면 된다. 이로써 사용자는 장소별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매번 스마트폰에서 설정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뉴 머드마리' 비누로 겨울 피부트러블 끝

바른 웰빙원이 겨울이면 찾아오는 여드름, 안면홍조, 건성 피부 가려움증, 습진 등 각종 피부 트러블을 한 번에 해결하는 '뉴 머드마리 바쉬비누'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청정심해 머드가 98% 이상 함유된 천연 미네랄 광물질과 프랑스 광산에서 채취한 천연 미네랄 광물질 벤토나이트 파우더를 혼합해 만든 천연 미네랄 미용 비누다. 벤토나이트는 유럽 및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여성들에게 최고급 미용제로 사랑을 받고 있는 신비의 흙이다. 또한 게르마늄 셀레늄 칼슘이온 등 46종을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있어 피부 재생 효과의 각종 피부질환에 도움을 주어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청을 공급하여 피부를 매끄럽고 탄력 있게 해준다.

What's New

풀무원이 바른 먹을거리 문제인을 확산하기 위해 '바른먹거리 원정대'를 운영한다. 바른먹거리 원정대는 먹거리 전문 교육강사인 푸드케어리와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올바른 먹거리 선택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청 대상은 5~7세 어린이들이 다니는 전국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회당 교육 인원은 20~50명이다. 31일까지 바른먹거리 원정대 홈페이지(food.pulmuone.com)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일루젼스튜디오는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모바일게임 '젤리보 for Kakao'를 출시했다. 화면에 솟아오르는 동물 모양의 젤리를 빠르게 터치해 점수를 획득하는 러쉬 퍼즐 게임이다. 총 다섯 가지의 깜찍하고 귀여운 젤리가 무작위로 솟아오르면 같은 컬러 및 종류의 젤리를 연속해서 터치해 콤보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서울여자대학교 박경원 교수(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가 21일 '한국 인사행정의 성찰과 새 지평'을 주제로 동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으로 취임한다. 한국인사행정학회는 지난 1997년 창립 이래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적 관리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2013년도 총 19건 45종의 우표를 발행한다. 기념우표에는 액시국으로 뜻깊은 제18대 대통령 취임과 숭례문 복구 준공 등이 있으며 민족운동 단체인 흥사단 창립 100주년, 제50회 법의 날, 해양경찰 창설 60주년 등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우리나라와 특별 해류 인도네시아·슬로바키아와의 수교 기념과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등 주요한 국제행사들도 우표로 만나볼 수 있다.

LG전자가 유럽 최고 에너지효율을 갖춘 드럼세탁기를 업계 최초로 출시하며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LG 드럼세탁기(모델명: F1495BDA)는 유럽 에너지효율 최고 등급인 A+++ 대비 4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해 'A+++ -40%'를 달성한 제품이다. 1주당 4회가량 세탁할 경우 A+++ 등급 대비 연간 110Kwh의 전기를 절감할 수 있다.

새로 나온 책

보스를 해고하라
강신수 지음/부키 펴냄

고어텍스를 만든 고어에는 보스가 없다. 모두가 동등한 동료이며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 직원들에게 귀를 잘고 배려한 내성적인 CEO 허큘러스 코넌트 덕분에 죽어가던 한할 수프는 다시 살아났다. 이 책은 보스가 상징하는 관리·통제 수직적 경영과 결별을 선언한다. 그 대안으로 90퍼센트 일반 직원의 열정을 설려내는 '거꾸로 경영'을 주장한다. 익숙한 경영 상식을 뒤집는 다음의 7가지 혁신 명제가 생생한 사례 및 실질적인 전략과 함께 제시된다.

보물섬1 창간특대호
서울문화사 편집부 지음/서울문화사 펴냄

교육계 전문가 30인이 기획부터 감수까지 참여하여 만든 통통학습만화지. 초등학교 전 교과 영역을 통합적으로 다뤘다. 실질적인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는 잡지다. 대한민국 최고 글 그림 작가진의 역량이 담긴 260여 페이지의 학습만화와 활천 기사로 구성돼 있다.

키질하던 어머니는 어디 계실까
김영조 지음/인물과사상사 펴냄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 김영조 소장이 그동안 소개했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주제별로 엮었다. 풍속부터 먹거리, 옷과 꾸미개, 한속품, 미술, 국악, 조선 철학, 24절기와 명절까지 각 장에서 우리 옛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긋나긋하고 재미난 말로 풀어냈다. 한 편씩 읽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씨가 자라날 것이다.

휘우드, 어둠의 책
G.P. 테일러 지음
추순애 옮김/호미하우스 펴냄

새도맨서의 작가 G.P. 테일러의 두 번째 소설. 18세기 영국의 런던, 순식간에 밤낮이 반복되며 말과 개들이 미쳐 날뛰는 등 대혼란이 광정 한복판을 휩쓸고 지나간다. 블레이크 박사는 전설로만 내려오는 어둠의 책 '네오맨시스'를 우연히 손에 넣게 되는데 그 책에는 혜성이 지구를 파괴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이 담겨 있다. 하지만 블레이크 저택의 하녀인 호기심 많은 소녀 에이제타는 주변의 꾐에 빠져 어둠의 책을 훔쳐 달아나버린다.

일어나라 기훈아!
정봉주 허현배 공저/MSD미디어 펴냄

21년 전 어느 날 노태우 정부가 최대의 시기극을 기획하고 그것을 현실화했다. '동료의 유서를 대필해 줬다'는 내용의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정봉주는 강기훈과 함께 오랫동안 재야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한 선배이자 벗이다.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홍성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정봉주는 2012년 8월 강기훈의 투병 소식을 듣고 옥중에서 편지를 쓴다. 그 편지 제목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인 '일어나라 기훈아'였다.

나는 꼼수다 Off The Record
국물성 지음/우리들의성 펴냄

'나는 꼼수다'를 녹음한 엔지니어의 고백이다. 김어준 정봉주 주진우 김용민의 뜨거웠던 기록이다. 글쓴이는 우연히 네 명의 남자와 만나고 함께 녹음을 시작한다. 그리고 글쓴이의 이전의 삶은 뿌리째 흔들리고 부서져갔다. 이 책은 보통의 사람들에게 주변까지 뜨겁게 물든인 네 남자의 진짜 삶을 증언한다. 가장 힘들고 가장 슬펐던 순간마저도 나지막하게 고백한다.

원미동 사람들
양귀자 지음/도서출판 쓰다 펴냄

작가 양귀자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이라는 삶의 공간을 무대로 80년대 소시민들의 삶을 압축해서 보여준 연작소설집이다. '원미동 사람들'에 실린 11편의 소설은 1986년 3월부터 1987년 8월까지 문예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표됐는데 소설이 발표될 때마다 문단이 크게 주목했다. 이번에 개정 출간한 4판은 한층 가독성 있는 편집으로 독자와 만난다.

그래야 살 길이 보인다
김선호 지음/다산북스 펴냄

이 책은 예순이 훌쩍 넘어 자살 직전까지 내몰렸던 한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다시 찾기까지, 가족이 힘을 합해 월 1000만원을 버는 반찬 가게를 성공시키기까지 그 눈물겨운 과정을 빼곡하게 담은 책이다. 성공 신화가 아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지 너무나 두려운 바로 우리 아버지들과, 지금 한창 돈을 벌고 있지만 앞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젊은 아버지들이 곧 마주해야 할 현실에 관한 이야기다.

존경받는 기업이 '롱런'

행복경영
조영탁 정형숙 공저/김영사 펴냄

"전설적 기업들의 비결 사회적인 책임에 충실"
조영탁 휴넷 대표 강조

"주주만을 위한 이윤 극대화보다는 직원, 고객, 사회, 주주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영을 할 때 이해관계자 모두의 사랑과 존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다는 경영 모델이다."

지난 13일 만난 '행복경영'의 주창자 조영탁(사진) 휴넷 대표가 말하는 '행복 경영론'의 정의다. '행복한 경영'은 그의 이 같은 지론을 한 권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경영학도에서 CEO까지, 23년 동안 국내외 경영사례 분석과 연구를 통해 집대성한 '행복경영'의 모든 것을 담았다. MBA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살아있는 경영 전략과 탁월한 성과를 내면서 장수하는 기업들의 숨겨진 비결을 공개하고 있다. 다음은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행복경영론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 13년 전 휴넷 창업 후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GE, G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도요타, IBM, 스타벅스 등 세계 최고 기업들의 성공 요인과 잭 웰치, 빌 게이츠, 마쓰시타 고노스케, 샘 월턴 같은 뛰어난 경영자들을 심층적으로 공부했다. 또 피터 드러커, 게리 하멜, 톰 피터스, 짐 콜린스 등 위대한 경영학자의 주장 내용과 연구결과를 공부했다. 그런 연구 결과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영모델을 만들어 낸 것이 바로 행복경영이다.

– 경기 침체기 지속되고 있는 현 불황에서도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인가

▲ 기본적으로 행복경영 모델은 단기 처방용 경영 모델은 아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정도를 걸어가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와 평판을 얻고 그들의 존경과 사랑 속에 오랫동안 성공하게 된다는 모델이다. 역설적으로 단기적 위기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원칙에 충실한 경영, 즉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화두이기도 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 1980년대 이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회사가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떠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 결과 입증되고 있다.

– 우리 기업들은 행복경영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나

▲ 2003년 처음 행복경영, 특히 직원 최우선의 원칙을 이야기했을 때는 상당히 생경해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행복경영에 대해 공감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 직장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책인가

▲ 이 책은 자기계발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인은 언젠가는 CEO, 임원, 창업의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미리 그런 것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글·사진 김지성기자

kimjisung@metroseoul.co.kr

화제의 책

책
박맹호 /민음사

그의 절필, '숱한 감동'을 낳았다

10평짜리 옥탑방 사무실에서 시작해 한국 출판계의 역사가 된 민음사 박맹호(사진) 회장이 첫 자서전을 냈다. 최대의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이문열의 '삼국지'와 최근 300권을 돌파한 '세계문학전집'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한수산, 황석영 같은 작가와 인연, 이강숙 등 신진 학자들과 만남 등이 한국 출판계의 반세기를 돌아보기에 충분하다.

지난 11일 박 회장은 서울 무교동 한미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소설가의 길을 포기하고 출판에 뛰어든 젊은 시절을 회고하며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는 내 능력을 스스로 간파하고 과감하게 소설가의 길을 포기한 것이다. 남들보다 먼저 훌륭한 작품을 만나고 나면 그 쾌감이 강렬하다"고 말했다.

또 "책은 인간의 DNA라고 생각하는데 후퇴할 거라곤 생각지 않고 또 사람이 완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책을 통해야만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민음사는 1966년 서울 종로에서 탄생해 우리 문단의 산실 역할을 했다. 박맹호 회장은 광복 이후 등단한 시인들의 대표적인 글과 오늘의 시인총서를 내 새바람을 일으켰다. 학교에서 일제강점기 시만 공부한 독자들에게 시의 새로운 맛을 안겨주며 '시집도 팔린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시집을 처음 가로쓰기로 펴자 다른 출판사들도 뒤따랐다. '오늘의 작가상'과 '김수영 문학상'을 만들어 이문열, 박영한, 장정일 같은 스타 작가를 배출했고, 계간 '세계의 문학'도 창간했다. 얼마전 세계문학전집 300권을 돌파하기도 했다.

작가 지망생이었던 박 회장은 "일찌감치 창작을 포기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쓰기보다 작가를 발굴하는 게 큰 보람이었다는 의미다. /김지성기자

캣우먼

임경선 칼럼니스트
ask.catwoman@hanmail.com

힘겨운 투병생활로 꽃다운 청춘 '허비' 이젠 더 치열하게 마음회복 올인해봐

Q Hey 캣우먼!
28살 때 받은 수술로 인해 수술 후유증이 생겨 5년간 투병하며 얼마 전에 마지막 수술을 받고 이제 끝이겠지 하고 한숨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32살.
저의 꽃다운 청춘을 병원 다니며 보냈네요. 부모님도 안 계셔서 제가 가장으로 직장생활하며 병원 다니고 발 동동 구르며 5년을 보냈어요. 투병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엄청 기쁘거나 엄청난 환희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탓인지 그냥 허망하고 쓸쓸합니다. 에너지를 다 써버린 느낌. 주변에도 이런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고 혼자 이겨내야 했었던 상황이라 너무 힘들었던 탓일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A Hey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당신이 느끼는 병후의 고독감, 원망, 상실감, 허망함 다 이해해. 한때 전화 통화할 힘도 없을 만큼 몸이 안 좋았거든. 병후의 세상은 평소의 평범한 모든 것들이 눈부실 만큼 아름답게 보였던 것도 기억나. 하지만 기쁨은 잠시. 회복이라는 목표가 없어지면 현실은 묵직하고 우울해져. 혼자인 게 더 이상 괜찮지도 않았고 언제 긴장 풀린 듯 갑자기 심약해지는 거지. 지난 오 년간 스스로를 응원하고 챙겨왔으니 당연히 지치지. 그러니 이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해받고 챙김 받는 것을 욕심 내도 괜찮아.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을 찾아야 해. 허나 투병생활한 사람들은 혼자임에 익숙했으니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직은 힘겹지. 그럴 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아주 소극적인 형태로라도 시작하는 것이 좋아.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 나의 삶이니 고통을 이해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의 존재로 내 주변의 누군가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보는 것. 당신은 이미 어떤 관의 지옥을 관통하고 온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한 여자잖아. 이제부터 마음 회복! (캣우먼)

날씨

12/26 水 일출시각 07:45 일몰시각 17:20

자료제공 K 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 청주, 대전, 전주, 광주, 제주, 강릉, 울릉도, 대구, 포항, 울산, 부산

추운 날씨에 집에만 있기 쉬지만 뼈의 건강과 면역 기능을 높이기 위해 볕이 좋은 날에는 충분히 햇볕을 쬐어주세요. 또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는 겨울철에는 에너지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 잡곡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식지수
폭설한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www.yuhs.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7	6	
6		2	9			1		
				8				
8							2	4
4	7		2		8		3	1
2	5							9
				1				
		7			4	3		2
	4	3	6					

	5	1					7	
7					3		2	
8			5		7	9		
	1			4		8		3
5		3		6			1	
		4	7		2			1
	2		6					9
	7					6	3	

스도쿠 정답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 8877
www.saju4000.com

새해되면 35살 결혼 못할까 걱정 내후년쯤 범띠와 연분 웨딩마치

회자란 여자 79년 8월 16일 음력

Q 양띠입니다. 용띠이고요. 매일 아침 이드로를 보며 출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올해 나이 34세인데요. 아직 미혼입니다. 곧 늦게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곧 35살이 되어가니 좀 불안합니다. 만나던 사람과 헤어지고 지금은 혼자입니다. 결혼운이 있는지 언제쯤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A 양띠이라 얼굴 모습은 같아도 성미나 운은 같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범띠와 연분이 있어 성혼이 이룹니다. 타고난 성품이 선미가 깊으니 운이 크고 극을 달리므로 크게 되고 좋전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면 우울증이 오기도 하여 운이 하강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내리막을 타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기술자로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본인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며 복도를 설정하세요. 부와 명성을 쫓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을 하면 세상의 욕망이 사로잡히게 한다는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전반의 힐링 활입니다. 표현 방생에 따라 다를 뿐 자기 성찰을 위해 노력하라는 결과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장애의 몸으로 헤쳐나가기 험난 섣불리 자영업 올인하다간 거덜

novel 남자 74년 6월 28일 음력

Q 1급 장애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10대에 경미하지만 소구 장애를 얻었고 20대부터 자영업을 몇 번 취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30대 초반에 결혼하여 얻은 아이도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 힘이 듭니다. 자영업을 다시 해야 좋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지 지방이다 등의 이주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A 재성(財星)인 재물운이 들어오거나 사주에 갖고 있어야 생록을 하는 것인데 재물궁이 2016년까지는 충살(沖殺)을 받듯이 충돌을 당하고 있으며 재물이 날라가버리는 흐름에 있어 자영업은 성공 확률이 매우 어렵습니다. 역마 성향이 있어 한자리에 오래 머무르지를 못하여 결려도 어려울 것이니 역학 공부를 하고 역술 공부를 권해봅니다. 귀하는 유화(有火)의 불씨가 있고 화로가 요원하는 사주로서 재능이 있는 장점이 있으나 상황의 불편함으로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고 마음만 급합니다. 툴화는 가면 안 되어 늦었을 깨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생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2월 26일 (음 11월 14일) 김희수 인생상담 02)577-0541

쥐 48년생 심기가 불편한데 달을 길이 않구나. 60년생 말은 양하던 방향으로 풀린다. 72년생 기회가 또 오니 차오차기 마라. 84년생 여론 따라 움직여야 손해가 없다.

소 49년생 서먹서먹 했던 배우자와 화해한다. 61년생 남 도울 땐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라. 73년생 원은 원하던 대로 풀린다. 85년생 돌이 좋으니 한숨이도 똑하게 챙겨라.

호랑이 50년생 시들어가는 꽃 때문에 그만~ 62년생 새 힘을 찾고서 삶이 충만해진다. 74년생 웃어도 웃는 게 아니구나. 86년생 허탈한 마음에 남보가 날아온다.

토끼 51년생 스트레스 쌓여도 참아야 한다. 63년생 가을에 단비가 내리는 격~ 75년생 그대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 있으니 더욱 분전하라. 87년생 미리 못 보면 글도 없다.

용 52년생 관록 사장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64년생 사소한 일이라고 대충 넘기면 낭패 본다. 76년생 연휠군 없으면 울락하니 뱃어 신경 써라. 88년생 공하면 통하는 셈이다.

뱀 53년생 이미지 변신 기회가 온다. 65년생 문서일과 사랑 만나는 좋은 서두르면 손해~ 77년생 걱정했던 좋은 미래에 그친다. 89년생 열심히 일한 후 할금한 휴식이 즐겁구나.

말 42년생 마음먹었으면 일고 나가라. 54년생 이우 피하니 호랑이 만난 격이다. 66년생 궂은 일이라도 잘 걷어라. 78년생 어렵지만 줄을 잡는 전사가 나타난다.

양 43년생 몸이 무거워 쉬고 싶다. 55년생 공적인 자리선 잘 끄러운 이야기는 언급 마라. 67년생 회사원은 평판이 좋아진다. 79년생 위기 때 문제해결 능력 보여줘라.

원숭이 44년생 지나가 기다려 부응하는구나. 56년생 결혼한 자녀가 오셔서 효도한다. 68년생 갈 길이 머니까 긴장 늦추지 마라. 80년생 갈구하던 해답은 드디어 찾는다.

닭 45년생 편들어는 자녀는 매가 약이다. 57년생 운세가 좋겠으니 움직여라. 69년생 실태를 인정하면 새 길이 열린다. 81년생 연인의 활홀한 윤지에 콧노래가 절로~

개 46년생 사람 사귀는 데 신경 써라. 58년생 문서를 서두르면 손실 본다. 70년생 변수가 있어도 계획대로 밀고 나가라. 82년생 일자리가 생기거나 소득이 늘어난다.

돼지 47년생 오라는 곳이 많아 즐거워진다. 59년생 자녀의 경사에 부듬꽃 활짝~ 71년생 조건 너무 따지면 찾아온 기회 놓친다. 83년생 편안과 다이른 약속 취파람이 절로~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풍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2 Come in, please. 부탁과 명령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브입니다.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Let's begin the meeting now. 문을 닫아주세요.
B Fine.
A 이 차트기 이해가 되나요?
B Yes. I understand the chart very well.

정답 Close the door, please. / Do you understand this chart?

생생영어팁

▶ What's the magic word? — Please.
마법의 주문이 뭐지? — Please요.

누구에게 뭔가를 시키거나 부탁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말이 please입니다. 그런데 종종 원어민들조차도 이것을 빠트릴 때가 있죠. 그러면 please를 빠트렸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What's the magic word?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Please를 마법의 단어라고 부르는 것은 뭔가 부탁을 하거나 시키면서 이 말만 붙이면 상대방이 다 들어준다는(그만큼 공손한 표현이기 때문에) 뜻에서 비롯되었답니다. 보통은 어른이 아이를 가르칠 때 쓰는 표현이지만 성인들 사이에서도 농담식으로 이런 말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TOEIC Reading ▶ ETS TOEIC Reading Prep Book

01 Taiwan Knitwear Corporation's board of directors ______ for two hours yesterday to review the annual report.
(A) met (B) meet
(C) meets (D) meeting

02 Employees have the option of attending a training class ______ completing an online tutorial.
(A) except (B) but
(C) or (D) so

01. 타이완 니트웨어 코퍼레이션의 이사회는 연차 보고서를 검토하고자 어제 2시간 동안 회합을 가졌다.
해설 문장의 동사가 필요한 자리인데, 시간 부사 yesterday가 과거를 의미하므로 과거시제인 (A) met을 쓴다.
어휘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review 을 검토하다 annual report 연차 보고서
정답 (A) met

02. 직원들은 교육 과정에 참석하거나 온라인 개인 교습을 수료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해설 문맥상 'A 또는 B'의 선택'이 적절하므로 선택을 의미하는 등위접속사인 or를 쓴다.
어휘 employee 및 직원 option 몇 선택할 수 있는 것 attend 을 참가하다 complete 을 완료(수료)하다 tutorial 몇 개별 지도 (시간) except 을 몇 ~을 제외하고
정답 (C) or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5 해결책 제안하기

답변할 때 자주 쓰는 표현

• 첫인사 하기

Hi. I'm calling you back regarding the delivery problem.
안녕하세요. 배달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전화 드립니다.

Hello, this is John Smith returning your call.
안녕하세요. 저는 John Smith고 연락 주셔서 전화 드립니다.

Hi, this message is for Mr. Brown. I'm returning your call about the bill.
안녕하세요, Brown씨께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청구서에 대해 연락 주셔서 전화 드립니다.

• 문제점 요약하기

According to your message, you want to postpone your interview.
당신의 전화 메시지에 따르면, 면접을 미루길 원하시고요.

I got your message saying that you need more staff for the conference preparations.
회의 준비를 위해 더 많은 직원이 필요로 하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I received your message about your flight cancellation.
당신의 비행 취소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We are aware of this problem.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됩니다 ybmBooks.com 02)2000-0515

류중일 감독 에쿠스 탄다

삼성 한국시리즈 2연패 공로 인정 사장급 대우… 2014년 연봉 급상승 기대

류중일(49·사진) 삼성 감독이 보그룹으로부터 에쿠스 차량을 지급받으며 사장급 대우를 받고 있다.

삼성 구단은 최근 류 감독의 자가용을 체어맨에서 최고급 세단인 에쿠스로 교체하고 팀을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했다.

삼성그룹은 보통 전무급 인사들이 체어맨이나 제네시스를 타고 사장급이 에쿠스를 택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류 감독의 위상을 사장급으로 올린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A급 선수들에게 지급한 1억당금 1억20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독은 만점 리더십을 발휘해 지난해 사령탑 데뷔와 함께 한국시리즈·아시아시리즈 정상을 정복했다.

올해는 즐기는 야구를 강조하며 김응용·김재박·선동열·김성근 감독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로 한국시리즈 2연패를 일궜다.

삼성 구단은 확실한 성과를 낸 류 감독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줬으나 연봉 인상은 내년 시즌이 끝난 뒤 고려하겠다는 자세다. 그는 2010년 말 3년간 계약금 2억원, 연봉 2억원 등 총 8억원에 계약했다.

삼성 구단 관계자는 "류 감독의 연봉은 내년 재계약 협상에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과거 선동열 감독(현 KIA 감독) 재임 시절 2005~2006년 한국시리즈 우승에 대한 공로로 선 감독의 연봉을 2억원에서 3억5000만원까지 올려줬다.

SK는 2007~2008년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김성근 전 감독(현 고양원더스 감독)은 2009년 말과 재계약하면서 최초로 야구 감독 연봉 4억원 시대를 열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산타 요정 농구장 외출 25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서울 SK와 부산 KT의 경기에 앞서 치어리더들이 산타복장을 하고 멋진 응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차·포' 빠진 WBC팀 애국심에 기대

이천호의 베이스볼 카페

내년 3월 열리는 WBC 대회를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파와 주축 선수들의 불참이 겹치면서 역대 최약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목표인 우승은 물론 4강도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좌완 빅 트리오가 빠졌다. 류현진은 LA 다저스 입단, 김광현(SK)·봉중근(LG)은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교체됐다. 역대 국제대회에서 기둥으로 활약했던 이들의 공백은 뼈아프다. 신시내티로 이적한 빅리거 추신수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 선수를 뽑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한국시리즈 2연패를 달성한 삼성은 가장 많은 선수를 차출했고 두산과 KIA는 주력 선발투수들이 포함됐다. WBC 후유증과 소속 팀의 리그 성적과 맞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하다. 겉으로 표현은 않지만 "우리만 손해 볼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근우(SK)·강민호(롯데) 등 예비 FA 선수들이 많다. 스토브리그에서 롯데 김주찬이 50억원을 받고 KIA에 입단했다. 몸값이 부풀려진 가운데 사상 최대의 FA 대박 잔치를 앞두고 있다. 이들에게 부상은 가장 피하고 싶다. 이전처럼 죽기 살기로 덤벼들지 않고 소극적일 수 있다.

이번 WBC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달리 군 면제 혜택이 없다. 4강을 달성한 2006년 1회 대회는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2회 대회는 준우승을 하고 병역 혜택을 요청했으나 논란 끝에 불기 된성을 받았다. 이번에는 병역 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첫 대회다. 동기부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이래저래 근심 어린 눈길을 받고 있다.

최근 1회와 2회 대회 지휘봉을 잡았던 김인식 전 감독은 이례적으로 "태극기를 보면 울컥하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면서 애국심을 당부했다. 선수들도 태극마크를 달면 정신 자세가 달라진다고 한다. 한국 선수들은 애국심 하나로 국제대회에서 승승장구했다. 돈과 병역 혜택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OSEN 야구전문기자

이대호 훈련 강행모드

내달 사이판 자율훈련 후 오릭스 캠프 참가

빅가이 이대호(30·오릭스·사진)가 내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대표팀이 모이기 전까지 팀 스프링캠프에 참가한다.

일본 스포츠 호치는 25일 "이대호가 내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팀 스프링캠프에 참가한 뒤 WBC 한국 대표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대호는 이미 팀 스프링캠프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받았지만, 새로운 감독 체제하에 들어간 팀에 적응하기 위해 스프링캠프 참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시즌 오릭스에서 4번 타자로 전 경기(144경기)에 출장하며 퍼시픽리그 타점왕(91타점)에 오른 그는 내년 시즌에도 팀의 4번 타자로 중심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내년 1월 8일부터 사이판에서 2주간의 자율 훈련을 하고 한국에 들른 뒤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로 건너가 2월 1일부터 오릭스 스프링캠프에 참가한다. 그 후 열흘간 팀에서 훈련을 하고 11일 한국 대표팀에 합류한 뒤 WBC 1라운드가 열리는 대만으로 넘어가 WBC를 준비한다.

/김민준기자